

청년 실업 사상 최악... 文정부 일자리 정책 효과 낼까

4월 실업자 117만4천명... 15~29세 전체 43%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창출 공약 힘 받을 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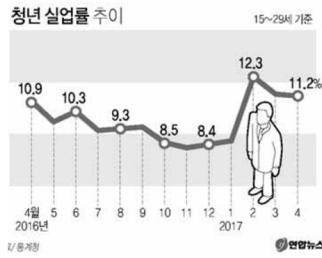
광주·전남을 비롯해 전국의 15~29세 청년 실업률이 4월 기준 역대 최고 수준으로 치솟은 가운데 대책 마련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일자리 공약을 앞세운 문재인 정부의 정책이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11일 통계청이 발표한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청년실업률은 11.2%로 전년 동월 대비 0.3%포인트 상승했다. 통계청이 실업자 집계 기준을 구직 기간 일주일에서 한 달로 변경한 1999년 6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4월 실업자 117만4000명 가운데 15~29세 실업자는 50만5000명으로 전체의 43.0%를 차지했다.

채용문이 갈수록 좁아지면서 청년 실업자도 늘고 있다는 설명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지난달 전국 100인 이상 기업 258개를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올해 기업 신규인력 채용 규모는 전년보다 6.6% 줄었다.

문제는 4월의 경우 기업들의 상반기 공개채용이 한창이어서 통상 실업률 수치가 낮아지는 시점이지만 청년실업률 등 청년 고용지표가 악화했다는 것이다. 이는 민간 채용 전반이 위축됐다는 뜻이기도 하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상황에서 정부가 일자리 공약을 실행하는데 추진력을 더할 수 있게



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문재인 정부 일자리 공약의 핵심은 민간기업이 아니라 공공부문을 이기 때문이다. 민간 고용이 위축된 상황에서 공공부문 주도로 일자리를 늘려 가계소득을 증가시킨다. 늘어난 소

득으로 소비를 확대해 내수가 활성화되고 이를 기회로 민간에서도 일자리가 창출된다는 그림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내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81만개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소방관, 사회복지전담공무원, 교사, 경찰, 부사관, 근로감독관 등 공무원 일자리 17만4000개, 보육, 의료, 요양, 사회적 기업 등 사회서비스 공공기관 및 민간수탁 부문 일자리 34만개, 공공부문(위험안전 업무 등)의 간접고용을 직접고용으로 전환 및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30만개 등이다.

이를 반영하듯 문 대통령은 취임 첫날 '1호 업무부지'로 일자리위원회 설치를 하달할 만큼 공약 실행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

다. 일자리 창출이 시장이 아니라 정부가 주도하는 것은 단편적인 처방에 불과하다는 주장이다.

또 공공부문 일자리를 유지하기 위한 막대한 재원 부담도 넘어야 할 산이다. 문 대통령은 일자리 81만개 창출을 위해 5년간 약 2조5000억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광주와 전남의 청년실업률은 지난 2008년 각각 8.6%, 7.3%에서 지난해 9.8%, 10.8%로 상승했다. 광주는 전국 평균 수준이며 전남은 광역외 가운데 가장 높은 수치다. 또 청년고용률 역시 2008~2016년 사이에 하락하고 있고 특히 전남의 경우 전국 최하위 수준에 머물러 있는 등 체감하는 고용사정이 악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양도소득세 신고 이달까지

지난해 부동산이나 파생상품 거래로 소득을 올린 납세자는 오는 31일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지난해 부동산 등 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하고도 소득금액을 합산해 신고하지 않았거나 코스피 200선물·옵션 등 파생상품 거래에서 양도소득이 발생한 납세자 4만명은 이달 31일까지 양도소득세를 확정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고 11일 밝혔다.

올해 신고 인원은 작년(3만1000명)보다 28.8% 늘었다. 확정신고 대상자는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전자신고하거나 신고서를 작성해 방문·우편 제출하면 된다.

국세청은 납세자가 양도소득세 관련 정보를 한눈에 확인하고 편리하게 전자신고할 수 있도록 홈택스에서 '양도소득세 종합안내포털'을 구축해 서비스하고 있다.

양도소득세 종합안내포털에서는 납세자가 예상세액을 미리 계산해보고 비과세·감면 해당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부동산 등기자료 명세 등 신고 도움 자료도 받아볼 수 있다. 이번 신고부터는 홈택스 회원 가입 없이도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나 신용카드 인증으로 전자신고할 수도 있다. 파생상품은 납세자가 소득금액을 확인하는 것만으로 신고를 마칠 수 있도록 하는 '모두 채움'서비스가 제공된다. 납부할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기한 경과 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분납할 수 있다.

신고 기한 내로 신고하지 않으면 20%의 무신고 가산세, 신고납부기한까지 세금을 내지 않으면 하루에 0.03%씩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다. 양도소득 금액을 과소 신고하면 신고불성실가산세 40%가 부과된다. /최재호기자 lion@연합뉴스



11일 주영성 중소기업청장이 광주시 북구 오룡동 광주과학기술원 오룡관에서 열린 벤처투자 설명회(IR)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광주·전남중소기업청 제공>

우수 창업기업 40개사 노하우 전수

호남권 최대 벤처투자 설명회 성황... 1:1 투자 상담 등

투자에 목마른 창업·벤처기업을 위한 호남권 최대 규모의 벤처투자 설명회(IR)가 11일 광주시 북구 오룡동 광주과학기술원 오룡관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는 투자유치 기회를 얻기 어려운 광주와 전남, 전북 지역의 창업·벤처기업을 지원하고 기술창업 열기를 확산시키기 위해 중소기업청이 마련했다.

설명회에는 드론 총동맹지와 자동 도킹 시스템을 개발한 (주)웨이브스리드, 방사선 피폭량을 최소화한 치료 수술용 포터블 엑스레이(Portable X-Ray)를 개발한 (주)에이치티, 미래 신소재 산업인 금속 그래핀 연료전지를 개발한 (주)엠퍼워 등

호남 지역 우수 기술창업기업 40개사와 예비창업자 등 200여명이 한 자리에 모였다.

1·2부로 나눠 진행된 투자 상담회에서 우수한 역량을 가진 벤처캐피탈(VC) 리스트 20명은 투자 상담 활동을 펼쳤다.

1부에선 사전 평가를 통해 엄선된 (주)웨이브스리드 등 지역 기업 10개사가 벤처캐피탈(VC)의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해 실리온밸리 투자 IR 형식의 '3분 발표, 3분 질의·응답' 방식으로 자신들의 기술과 장점을 설명했다.

2부에선 벤처캐피탈(VC) 16개사가 30개 기업을 대상으로 1대1 맞춤형 투자 상담을 통해 투자 규모와 방식 등에 대한 의

? 벤처캐피탈(venture capital) 위험성은 크나 높은 기대수익이 예상되는 사업에 투자하는 자금을 말한다. 장래성이 있으나 자본과 경영기반이 취약하여 일반 금융기관에서 융자받기 어려운 기업에 대하여 창업 초기단계에 자본참여를 통해 위험을 기업가와 공동 부담하고 자금관리와 경영관리, 기술지도 등 종합적인 지원을 제공, 높은 이득을 추구하는 자본 또는 금융활동을 의미한다.

견을 주고 받았다. 행사에 참석한 주영성 중소기업청장은 "투자 중심의 창업생태계를 하루 빨리 정착시키고, 우리 경제의 활력 제고를 위해 일자리 창출의 돌파구인 창업·벤처기업을 집중 육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대성기자bigkim@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 코스피 2296.37 (+26.25)
- ↓ 금리 (국고채 3년) 1.73% (-0.01)
- ↑ 코스닥 647.58 (+4.90)
- ↓ 환율 (USD) 1127.90원 (-7.90)

내일 목포서 '일새주배 축구대회'

보해, 지역 생활체육 활성화 지원...36개팀 열전

제2회 일새주배 축구대회가 오는 13일 목포국제체육센터 보조경기장에서 열린다.

보해양조주(대표이사 임지선)가 목포 지역 생활체육 활성화와 축구 문화 발전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하는 일새주배 축구대회에는 36개 팀이 참가한다.

보해양조는 모든 팀에 일새주와 매쉬순, 순한 막걸리 등 상품을 전달하고 결선에서 오는 8개팀에 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보해양조 채원영 사장과 박홍물 목포

시장, 국민의당 박지원 의원 등이 참석해 대회를 축하한다.

채원영 보해양조 사장은 "일새주배 축구대회는 목포 시민과 67년 동안 함께 울고 웃었던 보해양조가 목포 시민들의 은혜에 보답하는 차원에서 마련한 대회"라며 "목포에 분사를 둔 보해는 지역민에게 도움이 될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목포에서는 축구동호회 회원선에서 오는 8개팀에 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보해양조 채원영 사장과 박홍물 목포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LH '목포권주거복지센터' 이전 개소

목포역 앞 남교 트윈스타 건물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광주전남지역본부(본부장 이정기)는 목포 KT하당 사옥에 위치한 '목포권주거복지센터'를 목포역 앞 남교 트윈스타 건물(2층)로 확장 이전하고 이달부터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목포권주거복지센터(임행찬 센터장)는 새로운 사무실 이전을 계기로 고객들

이 더 수월하게 주거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목포권 주민들이 임대주택 정보를 손쉽게 알 수 있도록 안내체계를 강화해 지역주민들에게 행복한 웃음을 줄 수 있도록 한다고 다짐했다.

또 구도심의 침체로 미분양중인 목포 남교 트윈스타 상가가 목포권주거복지센터 사무실 입주로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대성기자bigkim@kwangju.co.kr

부동산
중개법인

한국토지(주)

광주, 전라 추천물건

풍암동 중심 상가

매매가격 1,700,000,000

장성 서산면 송현리 (공장)

대지 1361평, 건물 372평
최저가 657,000,000
감정가 938,000,000

동구 대인동 근린주택 (4층건물)

토지 128평, 건물 250평
최저가 885,000,000
최고가 885,000,000

나주 문평면 옥당리, 둔사

토지 1417평, 건물 484평
최저가 224,000,000
최고가 321,000,000

화순 도곡면 천암리 (숙박시설)

대지 978평, 건물 1294평
최저가 993,000,000
최고가 3,788,000,000

서구 화정동 원릉(화정역인근)

토지 94평, 대지 157평
최저가 549,000,000
감정가 784,000,000

동구 금남로3가 근린시설

토지 118평, 건물 305평
최저가 742,000,000
감정가 1,059,000,000

운림동 기전빌라

22평형 6가구 (수익성 전용)
대지 110평, 건물 124평
매매 5억2천만원
세대당 용자 6,000만원, 월세 45만원

제일오피스텔 29층

감정가격 9,000만원
매매 6,300만원
보증금 500만, 월세 25-40만원

010-3070-2147 유 여사

투자금 100% 보장
부동산매도 매수환영

010-8559-8905 이용국 팀장